

## 특별활동의 실제적 실행을 위한 방안 탐색

민 용 성  
(광주남초등학교 교사)

### 《요약》

본 연구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여 실제적 실행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의 편성·운영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G초등학교의 특별활동 실행 사례를 통하여 그 실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G초등학교의 교육계획서와 학년별 특별활동 세부 운영 계획서를 분석하였으며, 특별활동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특별활동 실행상의 문제점과 해결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활동 계획 측면에서는 ①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참여도, ②학생의 요구 반영, ③문서상의 계획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특별활동의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학생 요구의 실제적 반영을 위한 학기 중 요구조사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특별활동 편성·운영 측면에서는 ①프로그램의 개설, ②시간 편성·운영, ③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 ④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 방안으로 연간 지도 계획의 지속적인 수정과 실행, 담임 부서제 운영, 지역별 특별활동 연구회 조직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특별활동의 평가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학생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동일 부서별 연차적인 연계 형식의 평가, 학생 평가를 위한 5개 영역별 평가 분담 체제 마련, 영역·부서별 평가 기준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 규명, 개별 접근식 차원의 운영,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사 연수 계획,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위한 교사간 협동적 사전 계획,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위한 융통성 부여 등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특별활동 교육과정, 특별활동 계획, 특별활동 편성·운영, 특별활동 평가

## 1. 서론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1954년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의해서였다. 그 후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서 그 독자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요구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용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특별활동을 학교교육에서 실행되어야 할 ‘특별한’ 활동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던 ‘교과’와는 별도로 다원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설정된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적 활동’(교육부, 1997)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별활동은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교과 활동 외에 교육적으로 의의가 있는 활동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과의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이라는 용어가 ‘특별활동’을 지칭하는 것이 관계가 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활동이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한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지역 사회나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으로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협력과정 활동(co-curricular activities)’이 보다 더 적합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협력과정 활동은 교과교육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때 기여하는 총체적인 교육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협력과정 활동은 단지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으로만 강조될 것이 아니라, ‘교과 이외의 활동이 전체 교육과정(교과교육)으로 통합(incorporating)되어야 한다’(Ponessa, 1992, p. 2)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은 협력과정 활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이 어떤 용어로 이해되어야 하는가와는 별도로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이라는 특별활동의 성격 규명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명료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근본적으로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별활동 교육과정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도 그 ‘영역’을 한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특히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이라는 정의는 오히려 그 성격이나 의의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별활동의 영역이 어떤 범주와 내용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 ‘특별활동’ 영역을 공식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교육부, 1998b, p. 213)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특별활동의 정체성을 확립하

1) ‘extracurricular activities’는 의미상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활동이라는 점에 포인트가 있으며, ‘co-curricular activities’는 전통적인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이지만 공식적인 교육과정 안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이므로 교과교육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측면에서 더 타당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고 그것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문제는 특별활동의 본질에 관한 논의와 탐구의 대상이 되는 핵심적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이 '교과교육 이외의 활동으로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공식적인 교육활동 영역'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같은 방과 후 교육활동은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특별활동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특별활동의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도 특별활동의 목표, 영역, 평가 등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마해결의 과제가 남아 있는 한 특별활동에 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편성·운영되어 왔으며,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확대·실행되고 있다<sup>2)</sup>. 따라서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 의의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김광민, 1998; 김광민, 2001)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행 중인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 운영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그 중요성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교과와의 상호 보완성과 전인교육의 일환'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sup>3)</sup>. 물론 교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영역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필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활동의 무게 중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여 실제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또한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장차 관심을 갖고 탐구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G초등학교<sup>4)</sup>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실행 과정을 사례로 제시하고,

2)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시간 배당 기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당 평균 2시간 이상 시간 배당이 되어 있는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보다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편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별활동'의 양적 팽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활동은 기존의 활동 집단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자치, 자율, 계발, 봉사, 행사 활동 5개 영역으로 설정하여 특별활동의 내용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교육적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활동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중략-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에서는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중학교에서는 왕성한 활동력과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아의 발견과 확립, 삶의 힘과 지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등을 재득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1998b, p. 213).

그 실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특별활동의 실제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특별활동 실행상의 문제

특별활동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적 사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 편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김홍근, 2001; 박철우, 2000; 박한숙, 2004; 양동진, 2002)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함께 G초등학교의 특별활동 부장교사와 학급 담임교사,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sup>5)</sup>을 중심으로 특별활동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특별활동 문서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교육계획서와 학년별 특별활동 세부 운영계획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장에서는 특별활동의 계획, 편성 및 운영, 평가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활동 교육과정 실행상의 문제는 특별활동의 계획, 편성·운영, 평가 등의 세 단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1. 특별활동 계획 측면에서의 문제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측면에서는 특별활동의 계획, 편성 및 운영, 평가 등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특별활동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 계획 과정에의 교사 참여도, 학생의 요구 반영, 학교교육과정 문서상의 계획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였다.

먼저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문제는 특별활동에 대한 이해, 관심도, 편성·운영에 대한 태도 등으로 귀착된다. 교과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은 주로 특별활동의 중요성을 교과활동보다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특별활동보다는 교과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도 역시 낮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뭐. 일주일에 한 두 시간 해서 얼마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스러워요. 교사 입장에

4) G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40학급의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이다. 학생 수는 1400여명이며 교장 1인, 교감 1인, 교사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5) 본 연구의 면담 대상교사는 특별활동 부장교사를 포함하여 각 학년별 2명씩 12명이었으며, 면담 대상학생은 2학년 1명, 4학년 2명, 6학년 2명 총 5명이었다.

서 보면. (4학년 Y교사)

대학에서는 특별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교과가 항상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교과 시험 범위까지 수업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특별활동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5학년 S교사)

이와 같이 특별활동을 교과교육의 대체 가능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수의 교사들에게 보편화된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활동을 교과교육의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활동 계획 수립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 태도 역시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계획에서도 주로 자치활동과 개발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이 문서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상당수의 교사들은 격주로 운영되는 자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치활동의 경우에는 계획에 따르기보다는 담임교사의 교육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활동은 문서상으로 운영 시간만 정해놓고 활동 내용은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안건만 정해서 운영해요. (1학년 L교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대체로 전체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담당 활동에 대한 지도 기능의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참여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부족한 교과교육을 보충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활동으로 인한 수업진도 배우기식 활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별활동 부장교사인 N교사의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활동만 연간, 월중 운영 계획을 세웠어요. 나머지는 담임 선생님들이 재량껏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 활동 그게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활동만 정해져 있고 (목요일 6교시),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재량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1학년 N교사)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성격<sup>6)</sup>을 보면 교과교육과의 상호 보완성, 활동 및 운영의 융통성, 학생의 자주적·자율적 참여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의 자주적·자율적 참여 행동’은 특별활동의 운영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6)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b, pp. 213-215). 첫째, 특별활동은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서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둘째,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둔다. 셋째, 특별활동은 집단을 단위로 하는 활동이다. 넷째, 특별활동은 그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진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특별활동에서는 학생의 기본생활습관과 자율적인 생활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인 참여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과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및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교사들만이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계획, 운영,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특별활동 교육과정에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당해 학기 전 혹은 학기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영역이나 사항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요구조사가 이루어진다. 즉 설문을 통하여 학생 요구에 대한 판단, 전체적인 실행 계획, 실행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특히 특별활동 참여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요구조사는 세부적인 영역과 내용을 설정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주로 학교 특별활동 부장교사(7)와 각 학년별 특별활동 담당교사(담임교사)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계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활동 부서를 편성하기 위한 과정에서조차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반에서는 축구부하고 배드민턴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엔 가위 바위 보를 해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전 잘못된 음악부에 들어갔어요. (6학년 남학생)

특기가 있는 교사가 열성을 가지고 부서를 편성하여 지도하면 그나마 나운데, 특별한 재능이 없을 땐 부서 편성하기가 정말 난감해요. 애들 흠뻑 위주로 편성하자니 지도교사가 마땅치 않고... (3학년 C교사)

이와 같이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다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이 학기초에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능력 부재, 학급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수 확보 등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경우가 많다.

G초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교육청의 장학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학교교육계획서에는 각 교과별 운영 계획,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그리고 특별활동의 편성 및 각 영역별 운영계획 등이 제시되

7) 초등학교의 학교 업무 조직은 6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의 특성이나 설정, 학교장의 교육철학 등에 따라 부서 편성(명칭)은 다소간 차이가 있다. G초등학교의 경우 교무기획부, 교육연구부, 도서교육부, 체육교육부, 과학교육부, 특별활동부로 편성되어 있다.

어 있다. 특히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경우, 자치·적응·계발·봉사·행사활동 등 5개 영역에 대한 균형 편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 편성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시간 배당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시간 배당 기준이 주당 1시간(1, 2, 3학년)과 2시간(4, 5, 6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고학년의 경우 계발활동은 매주 1시간씩, 자치활동은 격주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 나머지 시간은 적응, 봉사, 행사활동 3개 영역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저학년의 경우는 적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주 4회 분산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5개 영역에 대해서 학년 및 학급별로 세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서상에 제시된 G초등학교의 특별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sup>8)</sup>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의 기본 방향, 편성 및 운영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학교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편성·운영 원칙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계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침의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서상에 제시하고 있는 G초등학교의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획은 학교 및 학년의 실제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특별활동 편성·운영 측면에서의 문제

특별활동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개설, 시간 편성·운영,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과 같은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에 관한 것이다(김홍근, 2001; 박철우, 2000; 양동진, 2002).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활동의 부서 선정은 학생들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학교의 실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계발활동의 경우 대

- 8) ①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②학생의 자기 표현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통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지역 사회 및 인근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④학생의 문제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⑤학교와 학년의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맞게 시간을 연속, 분산, 집중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활동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⑥영역별 시간은 연간 계획 수립시 학년 실정에 맞게 학년별로 조정 가능하고 기준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로 학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발활동의 부서는 해당 학년의 학급 수(담임교사 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자 애들은 회화반과 십자수반에 많이 갔어요. 근데 전 단소를 배우고 싶었는데 별로 하고싶은 것이 없어 십자수반을 갔어요. (4학년 여학생)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자면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의 부족, 시설 및 공간의 부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실제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의 행정직, 재정적인 지원 없이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한 시간 편성,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지역사회 인사 활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 운영 시간은 연간 1학년이 30시간, 2·3학년이 각각 34시간, 4·5·6학년이 각각 68시간이 시간 배당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G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간 배당을 하고 있다. 1·2학년의 경우 적응활동을 중심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10분씩 분산 운영토록 하고, 3학년은 자치활동과 개발활동을 격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4·5·6학년은 2시간 중 1시간은 개발활동으로 고정 운영하고, 자치활동은 격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활동과 개발활동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시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교육계획서 구성시 자치활동과 개발활동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고정 운영토록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서 담임교사들의 자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제 형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시간표 조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교교육계획서 세울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시간 배당을 했으면 한데...-중략- 우리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서에 나와 있는 전체 시간 운영 계획 때문에 학년에서 전일제나 격주제 형식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질 못해요. (5학년 S교사)

또한 저학년의 경우는 특별활동이 분산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이 특별활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과 수업에 편중되어 운영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계획과 활동 주제는 잘 짜여져 있지만, 시간표상에 시간 배당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교과 수업이나 학교 행사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죠. (2학년 K교사)

특별활동이 없는데요, 시간표에. 3학년에 올라가면 배운다고 했어요. (2학년 여학생)



이와 같이 시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특별활동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학년별로 적절한 운영 방법을 지밀하게 계획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활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격주로 2시간씩 시간 운영을 한다거나 전일제 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적인 시간 운영은 각 학년별, 부서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사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탄력적인 시간 운영은 담임교사나 특별활동 담당교사의 자율적인 세부 실행 계획과 그에 따른 충실한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시간 배당 시수가 주당 1-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 5개 영역에 대해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차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교구, 자료 등의 확충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G초등학교의 경우 주로 학년별로 개별 학급의 교실에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 체육 활동이나 실습 노작 활동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시설이나 설비를 활용하거나 이웃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드민턴부와 축구부는 학년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운동장을 쓰면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해서 애들이 하지도 못하고, 학교에 있는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가 오래 되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아이들이 다 갖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양한 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 문제도 큰 것 같아요. (4학년 Y교사)

결국 학교의 특별활동 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학년별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교 내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인사를 활용하거나 가정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사 자원을 특별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는 특별활동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서 차지하는 특별활동의 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과후에 하는 것은 외부강사를 쓰는데, 특별활동은 시간도 너무 짧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40분 이라서 체험학습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야죠. (5학년 S교사)

지역 인근 봉사 단체나 기관과 연계가 되어 월 1회 활동을 전개하거나,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영할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체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3학년 C교사)

이와 같이 상당수의 교사들은 특별활동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및 기자재 확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시간 배당의 확대와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 3. 특별활동 평가 측면에서의 문제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평가는 크게 프로그램(지도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학생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와 각 학급의 교사는 학생들의 실태나 환경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G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의 특별활동 분야에서 특별활동의 기본 방향, 편성, 시간배당, 영역별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평가의 기본 방향이나 영역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교과 영역별 평가와 재량활동의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구성 과정에서의 누락 오류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특별활동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과활동만큼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차후의 프로그램 개발과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면담 대상 교사들의 상당수는 학년말에 1년 동안 운영하였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서별로 지도 계획을 수정하여 다음 학년에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학년 R교사)

이와 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타당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학생의 활동에 대한 평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 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방안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의 학생에 대한 평가는 활동의 결과 얻어진 기능이나 지식보다는 학생의 참여 태도, 흥미, 관심,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는 것이 특별활동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평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태도의 변화, 개개인의 개성과 특기 등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기보다 주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계발활동의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체크리스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담임교사가 평가하는 자치활동을 비롯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은 특별활동 부장교사인 N교사의 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많은 부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세요. 담당 선생님이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체크리스트로 해서, 그 다음에 학년말에 기준표와 함께 평가하신 것을 담임 선생님께 결과를 드리죠. 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격주로 이루어지는데 평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나 학습 태도가 좋은 애들은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1학년 N교사)

G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의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태도, 행동 및 기능의 변화 등을 누가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 Ⅲ. 특별활동의 실제적 실행 방안

II장에서는 G초등학교의 특별활동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지적된 문제는 비단 해당 학교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활동의 계획, 편성 및 운영, 평가 등의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중앙집권형 중심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간에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별활동 실행상의 문제는 II장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대체로 계획 측면에서는 ①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참여도, ②학생의 요구 반영, ③문서상의 계획 등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편성 및 운영 측면에서는 ①프로그램의 개설, ②시간 편성·운영, ③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방안, ④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과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평가 측면에서는 ①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②학생에 대한 평가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실행 단계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통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II장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특별활동의 계획 측면

특별활동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계획의 걸림돌 중 하나는 특별활동 계획 과정에서 교사들의 적극성 결여이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관심을 들 수 있다. 즉 상당수의 교사들이 특별활동을 교과교육의 부수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특별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개인이 참여하기보다는 특별활동부장 및 연구부장 등 특정 교사에게만 떠넘기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문제는 특별활동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단계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관련 교사 연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지원적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 즉 시·도 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 교육과정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자원 활용 방법에 관한 연수,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른 5개 영역별 중점 지도 요소 추출 방법에 관한 연수, 각 영역별 우수 지도 사례 연수, 특별활동의 영역별 세부 평가 방법에 관한 연수 등 학교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에서 특별활동을 위한 자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자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특별활동의 각 영역별 프로그램의 목표, 지도 내용, 세부적인 연간 지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수는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은 학생의 자발적, 자율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학생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의 획득이라는 교육적 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활동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가의 여부는 특별활동 실행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별활동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특별활동이 분산 혹은 격주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 단위의 수업 시간표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학기초에 각 영역별 지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

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특별활동 부장교사와 담당교사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학년초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학생의 요구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요구조사가 학년초에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적어도 한 학기에 1-2회 정도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형식적인 방법에 의해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요구조사가 아니라, 특별활동의 5개 하위 영역별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특별활동의 편성 및 운영 측면

특별활동 담당교사들은 실제 운영의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설문이나 면담 등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 적절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충하는 지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의 운영을 보면, 주로 학기초에 세운 계획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해 간다. 따라서 일회성 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기능 향상이나 발달적 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지도 내용을 적절히 통합하거나 지도 계획을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 특별활동 교육과정 실행의 효과성은 달라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년 단위로 편성되는 계발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담임 부서제’ 운영이 필요하다. 각 부서의 지도교사가 매년 바뀌게 되어 학년이 달라져도 학년별 능력 수준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양과 질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담임 부서제 도입이 요구된다. 담임 부서제는 교사가 현재의 지도 학년에 상관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서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교사가 해당 학교의 재직 기간 중에 동일 부서의 지도교사로 활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부서별 담당교사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평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특별활동 실행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사의 수동적 참여태도는 대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특별활동 운영에 장애가 되는 시설 및 설비의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급이나 지역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

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문가, 특별활동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 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교육청은 지역 실정 및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매년 5개 영역별로 우수 지도 사례를 공모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예시적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각 학교 단위별로 자율적인 연구 체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별 특별활동 연구회'(가칭)를 구성하여 특별활동의 정상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 교과 씨클(연구회) 활동과 같이 특별활동 연구회를 조직하여 학교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실천 활동을 통해서 담당교사들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기능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특별활동의 평가 측면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계획, 조직, 실천 등의 여러 과정에 걸친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특별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 활동 과정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특히 자치, 적응, 개발, 봉사, 행사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평가하되 지도 계획, 지도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특별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유광찬, 2001, p. 54). 특별활동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불충분한 시간 배당, 인적·물적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의 문제는 특별활동의 실제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특별활동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문제는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물론 특별활동 평가의 특성상 교사의 창의성과 융통성이 요구되지만,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자료의 수집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그 실행의 효과성은 달라진다고 볼 때, 학생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실행에 따른 담당교사의 자기 반성과 수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각 부서별로 연차적인 연계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담당교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인사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G초등학교와 같이 학년별로 부서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학년에 동일한 부서가 편성될 수 있다. 이때 동일 영역의 부서를 지도한 교사들이 모여서 지도계획서와 실제 지도사례를 제시하고



상호 교환함으로써 해당 부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간의 논의 과정에서 지도 계획의 내용과 방법, 학년 단계에 따른 지도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다음 학년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에 대한 평가의 경우, 우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교사들이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평가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타당한 평가방법에 대한 교사들간의 공동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의 5개 하위 영역별 ‘평가 분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년 단위 운영의 특성상 담임교사 개개인이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방법과 내용을 구안함으로써 보다 타당한 평가방안을 담임교사들에게 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평가에 대한 교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활동 계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각 영역과 부서별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평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교육의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교육의 목적은 소위 ‘성인(聖人)을 길러내는 것’과 ‘사회에 잘 적응해 가는 합리적인 인간, 즉 적응인(適應人)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인류 역사를 통해 축적해 온 지적 유산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절대적 지식을 가르쳐야 함을 말하며, 후자는 개인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상대적 가치를 갖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자를 상충적 관계로 파악하기 보다는 상보적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곧 가르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을 이처럼 성인과 적응인 양자간의 상보적 관계로 받아들인다면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재량활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교과교육의 보충적,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별활동 영역에 어떤 활동들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 때부터 ‘학교재량시간’과 현

행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이 교육과정의 또 다른 영역으로 추가됨으로써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간의 관계와 성격이 더욱 불분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교육과 특별활동의 보충·심화적 활동으로서의 재량활동과는 달리 특별활동은 교과교육과의 대등한 정도의 교육적 의의를 갖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특별활동은 전인 형성 차원에서 보면 교과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없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실제적 실행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나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특별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하는가의 여부는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실제적 실행 방안은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문제 제기와 향후의 탐구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특별활동 실행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교육적 의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의 논의와는 별도로 특별활동 연구 문제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 교육적 의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활동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의 영역과 내용이 선정되고 실제 실행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편성,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의 상호보완성을 전제로 하되, 특별활동의 독자적인 성립 의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교육과는 엄격히 구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노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특별활동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단체활동 중심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 접근식 차원에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발시 영재 학생이나 지진 학생과 같은 특수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보통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실행된다는 점이다. 특별활동 교육과정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학교교육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활동이다. 미숙한 학생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다 집착하며 거기에서 얻은 성취감이나 도전정신은 다른 영역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Reynolds & Karr-Kidwell, 1996). 이러한 특별활동의 역할은 지진학생 뿐만 아니라 영재학생에게도 해당되며 특별활동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교육과의 적



응 혹은 상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활동을 교과 교육과의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특별활동의 실제적 실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담당교사의 지도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활동의 계획, 편성 및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담임교사 개개인이 책임감과 담당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즉 특별활동을 교과교육의 부가적인 요소 혹은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인 형성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주요 활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지도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영역별 및 담당 활동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교사 연수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발활동의 경우 학기 초에 특별활동 부서별로 자원 인사와 기관, 시설,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별활동 부장교사와 담임교사들의 협동적인 사전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 방법은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각부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계획서에 학교 전체의 특별활동 시간 운영 방법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학급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주제, 전일제, 시간 분산 운영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담임교사는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특별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8]. 서울: 교육부.
- 교육부(199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제량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우리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한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특별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특별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광민(1998).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활동의 위치: 의례(儀禮)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6(1), 277-298.
- 김광민(2001). 교과와 특별활동의 관련: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4(2), 27-42.
- 김홍근(2001). **고등학교 특별활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경목 외 2인(2000). **초등 특별활동 운영론**. 서울: 양서원.
- 박철우(2000). **중학교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박한숙(2004). 제7차 초등학교 특별활동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초등교육연구**, 17(1), 353-370.
- 송민영(2003).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제적 접근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1(4), 133-158.
- 양동진(2002). **초등학교 특별활동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유광찬(2001). **특별활동 및 제량활동**. 서울: 교육과학사.
- 유광찬 외 7인(2004). **특별활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Brown, R. A. (1999). The influence of extracurricular activity participation upon youth problem behavior: School connection as a mediator.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30167)
- LeBard, C.(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community colleges'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leadership abilit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429625)
- Ponessa, J. M. (1992). Student access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51431)

Reynolds, R. K. & Karr-Kidwell, P. J. (1996). A literary review and a plan for principals: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ademic achievement, and secondary students' succes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97475)

• 논문접수 : 2004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4년 11월 22일 / 게재 승인 : 2004년 12월 3일

## ABSTRACT

### The Investigation on a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s

Yong-Seong Min

(Teacher, Gwangju Nam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problems in planning, organizing and managing, and evaluating of EA(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 of them. For the purposes, I review the related literature about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nalyze a plan for schooling, a scheme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the G-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And I interview a charge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eachers, and students.

The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extracted. These problems were clarified in the aspects of planning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ganizing and managing of them, and evaluating of th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requirement of teachers' interest about EA, active participation in a planning for EA, and accommodation to students' needs were suggested in the planning aspect of EA. Secondly, the extension of teachers' study and training, constitution and management of a society for the EA research were suggested in the organizing and managing aspect of EA. Thirdly, the needs for program reconstructing and the arrangement of evaluation criteria were proposed in the evaluating aspect of EA.

**Key Words :**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curricular activities, planning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ganizing and managing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evaluating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